

매일경제

코로나 영웅 정은경, 구로콜센터 사례로 집단감염 국제논문

기사입력 2020-04-26 17:39 최종수정 2020-04-26 19:45

美CDC 발행 학술지에 발표
31번 환자는 두달만에 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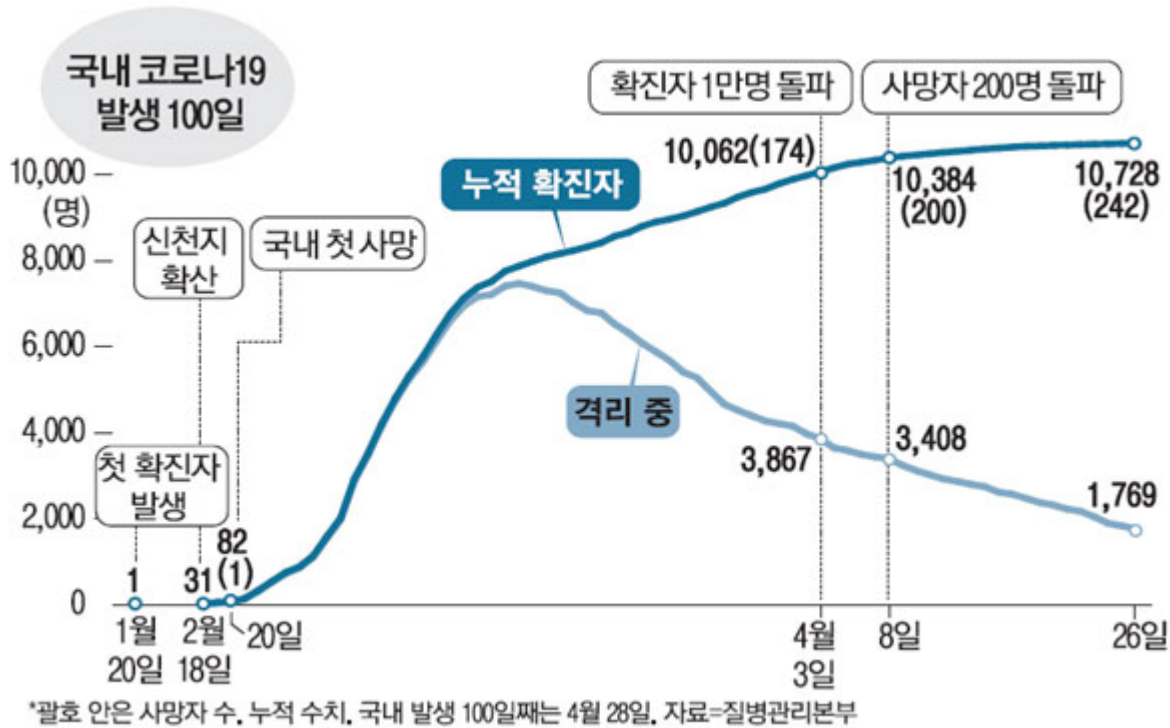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첫 국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 '신종감염병' 온라인판 최신호에 따르면 정 본부장팀(제1저자 박신영)은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수도권 최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인 콜센터 감염 관련 방역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정 본부장은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신저자는 논문 작성을 총괄하는 책임저자를 말한다. 논문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논문에 교신저자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들어간다. 방역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 본부장이 국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제1저자가 아닌 교신저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논문 작성에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방역 담당자들도 참여했다. 연구팀은 콜센터 건물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했던 1143명 중 9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이 중 최초 확진자가 나온 건물 11층의 확진자 발생률이 43.5%를 기록해 전체 건물 평균 발생률(8.5%)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확진자 97명 가운데 89명(91.7%)은 조사 시작 당시부터 증상이 있었고 4명(4.1%)은 처음엔 증상이 없다가 격리 기간(14일) 중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4명(4.1%)은 격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들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가족 접촉자 17명 중 2차 감염자가 1명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는 실제 전염성이 강하지 않고 방역 당국이 시행한 고강도 자가격리 조치 등이 2차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 본부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같은 고밀도 작업 환경이 코로나19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무증상 시기에 노출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전파·확진되는지 등의 내용을 논문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28일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1월 20일)한 지 100일째가 된다. 당국이 발표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이날까지 9일째 국내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명 안팎으로만 발생하고 있다. 26일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한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이던 간호사 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해당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벗고 입을 때 감염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3일 대구에서 확진된 10대 남성이 이달 17~18일 부산 지역 클럽과 주점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초가 됐던 논란의 31번 환자(61·여)가 확진 67일 만에 퇴원했다.

[서진우 기자 / 대구 = 우성덕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매일경제' 바로가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9&aid=0004564164>
